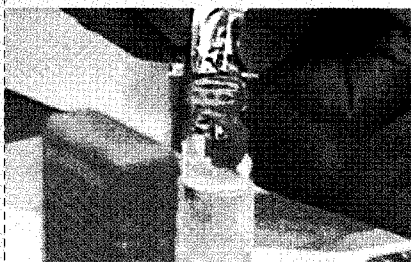


KWWA Member's News

회원님들의 최근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 드립니다

환경부 수돗물 수질 감시항목에 '발암의심물질' 추가



환경부는 발암의심물질인 '퍼클로레이트'를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질 감시항목은 검출 빈도와 농도가 높은 물질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수질 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한 전 단계로 현재 포름알데이드 등 23개 항목이 지정돼 있다. 퍼클로레이트는 감상전에서 요오드 섭취를 방해해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2006년 낙동강에서 퍼클로레이트 오염이 문제가 되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관리해 오고 있다. 향후 환경부는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에 대해 수계별 원·정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니터링을 한 뒤 검출빈도가 높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수질기준이나 감시항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국토공간정보 사업으로 녹색 일자리 창출

오는 2012년까지 각 부처에서 개별 구축중인 국토·환경 등 국가공간정보가 하나로 통합되고, 3차원 전자지도가 전국에 구축된다. 또, 현재 지자체에 구축중인 상·하수도, 가스, 송유관 등 주요 지하시설물 자료가 2015년까지 전국에 통합 구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공간정보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총 78억 원(국비 60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서 중점 추진할 공간정보사업은 크게 국가공간정보 통합, 3차원 전자지도 구축, 지하시설물DB 전국 통합, 1:2,500 대축척지도 전국 구축 등 4개 사업이다. 이 같은 공간정보사업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인력고용효과가 높고, 공간정보가 향후 공공·민간·대국민용으로 다양하게 융·복합되어 활용된다는 점에서 녹색 일자리 창출 및 국내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현대제철 당진공장 산업용수 운영 관리 시작

한국수자원공사는 (주)현대제철 당진공장 일관제철소 산업용수 생산시설(급배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올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5년간 맡는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하루 물 사용량은 19만 2천 톤에 달한다. 계약 체결 후 시설물 인수인계 등을 위해 약 2개월 동안 합동근무를 거쳐게 되며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제철은 물 전문 공기업의 책임 관리로 용수수급의 안정성과 수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노사간 필수유지업무 협정이 체결돼 있는 수공의 책임운영을 통해 시설 기동 중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공 역시 차세대 수처리 핵심 기술인 순수, 초순수 생산 기술역량 확보와 함께 산업용수 사업의 해외 진출기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특별시 95만 가구 수돗물 무료 수질검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무료 수질검사를 하는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시행하여 지난해 68만 가구를 검사한 데 이어 올해 95만 가구를, 오는 2010년까지 260만 서울시 전 가구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리수 품질확인제'는 수질 검사원들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5개 항목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현장 검사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 확인되면 '수질적합' 필증을 발부하며 부적합 판정 시료는 채취해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아연, 망간, 염소이온 등 7개 항목을 추가로 정밀 검사해 결과를 알려주고 시민고객과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집안의 노후 된 수도관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된 것이 확인되면, '옥내수도관을 교체 또는 갱생(세척 후 내부 코팅)토록 안내하고 공사비 지원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서울특별시 수돗물을 마시는 서울시민 절반 넘어서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 2,022명을 대상으로 수돗물 음용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50.9%인 1,029명이 끓인 물을 포함한 수돗물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끓인 물을 포함한 수돗물을 항상 또는 자주 마시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 '기름 마시는 경우'를 포함하면 63.6%(1,287명)가 수돗물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돗물의 이름인 '아리수'에 대한 인지도는 68.8%로 2006년 5월 12.3%보다 56.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로는 '막연한 불안감' '물탱크나 낡은 수도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냄새가 나는 등 물맛이 없어서'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 노후 수도관 교체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서의 옥내수도관 교체를 할 경우 비용(가구당 최대 150만 원)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부산광역시 '생명을 위한 물' 관련 세미나 열어
 지난 3월 19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을 위한 물'이라는 주제로 기념식 및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낙동강 살리기와 상수원 다변화를 통한 부산 발전(부산대 신현석 교수), 부산지역 하천관리를 위한 목표수질 설정(부산발전연구원 신성교 박사),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 및 재이용 방안(환경시설공단 강동호 박사)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부경대 이석모 교수의 사회로 낙동강공동체 김상화 대표, 부경대 이병현 교수, 부산가톨릭대 김좌관 교수,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 류병순 과장이 주제 발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대전광역시 시민과 함께 하는 맑은 물 지키기
 2009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대전시는 지난 3월 17일 유등천변에서 박성호 대전시장을 비롯, 시



민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증정화 활동에 나섰다. 이날 참석자들은 '맑은 물 비전 선포식'을 갖고 건강하고 안전한 맑은 물 환경조성을 다짐했다. 수증정화 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한밭대교에서 삼천교까지 이르는 천변 둔치에서 쓰레기 수거도 함께 했다.

울산광역시 물 부족 해소 '빗물' 활용 활성화
 울산시는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빗물 활용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보고, 가능한 모든 공공건축물에 빗물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생활용수(화장실 세척수 등)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붕 면적이 넓고 저류시설 설치가 쉬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빗물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20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 시범사업이 성과를 거둘 경우 건축물의 빗물 재이용, 녹지공간의 인공호수, 도심 재난방지를 위한 저류조 설치 등 사업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빗물이 토양에 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용역과 공원, 도로변 등 배수로, 우수관 등의 콘크리트 시설을 특수시설로 교체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 경안천 수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경기도는 66억 원을 들여 광주시 벌원천과 곤지암교 등 경안천 지류 6곳에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설이 설치된 지점은 탄벌동 탄벌초교, 탄벌동 그린파크, 경안동 벌원천, 경안동 목현천 하류, 곤지암리 곤지암교, 곤지암리 화신중기 등이며 설비는 비점오염원을 일정지역으로 집수해 기계장치형으로 정화, 처리하는 방식이다. 도는 비점오염이 수질오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하량 중 40%에 달해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비점오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에 현재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한강수계 오염부하량을 삭감해 지역개발사업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 지하수 수질측정망 검사결과 '양호'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08년 도내 지하수 수질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포함 등 23개 시·군의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운영했다. 총 251건을 검사한 결과 중금속 등 특정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2009년에도 연 2회 검사를 실시해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지하수 수질보전 및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수질검사 항목은 지하수 생활용수 수질기준 20개 항목으로 251건 검사 중 38건(15.1%)이 부적합이었으며 초과항목은 모두 일반 오염물질인 일반세균 35건, 질산성질소 1건, 염소이온 2건이었다. 일반세균과 질산성질소의 부적격 원인으로는 생활오·하수, 비료살포 등이 었다. 오염된 지표수가 지하관정에 유입되었거나 시료채취 과정에서도 오염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상남도 도청 잔디광장에서 '물사랑 그림대회'

경남도는 제17회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지난 3월 14일 오전 도청 잔디광장에서 도내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 등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남 물사랑 그림대회'를 열었다. 올해로 6회째인 이번 행사는 미래 주인공인 학생들이 물을 주제로 한 그림대회를 통해 물사랑 및 물절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남도와 한국미술협회 도지회는 물사랑 및 물 아껴 쓰기 풍선제작,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람사르환경재단도 물사랑 및 수질오염, 자연생태계 사진 전시 등을 통해 물에 대한 소중함을 도민에게 알렸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정수장에서 생산된 500㎖ 페트병 수돗물을 무료로 제공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수돗물 사용 활성화를 홍보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청정 물 콘텐츠 축제



세계 물의 날 기념, '2009 제주 청정 물 콘텐츠 어워드'가 지난 3월 21일 오후 1시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세계 물의 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2009 제주 푸른 물 창작만화·이야기 공모전 시상식과, 가수 김태곤씨의 물활용 퍼포먼스 공연, 이기원 작가(드라마 '하얀거탑' 작가)와의 '물 콘텐츠가 갖는 가능성과 제작방향'에 대한 담화, 공모 당선작 전시, 제주 수도 50년사 사진전, 전국 지하수 물맛 체험 및 세계 유명 먹는 샘물 전시 등 다채로운 물 문화 콘텐츠로 구성됐다. '2009 제주 푸른 물 창작만화·이야기 공모전'에는 국내 기성작가 및 신인작가는 물론 해외에서도 응모, 총 118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제주도와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은 다양한 물 문화 콘텐츠 발굴 및 활용 등을 통해 세계적인 참여형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양시 가정수돗물 무료 수질검사 실시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돗물 불신 해소를 위해 각 가정의 수돗물과 정수기의 수질을 분석해 알려주는 '가정수돗물 전문진단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가정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되며, 먹는물 검사기관 분석직원은 신청 가정을 직접 방문해 채수 및 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가정으로 발송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연중 실시되니 검사에 적극 참여해 수질을 인증 받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수도관 녹물 걱정 끝

경기도 성남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옥내 노후관 개량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부 수도망에서 건물 안으로 물을 공급하는 옥내 급수 설비가 오래돼 부식

됐을 경우 개량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거용 건축물,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이며 지원 규모는 급수관 교체 시 공사비의 50%이하 최대 60만원, 급수관 갱생의 경우 공사비의 80%이하 최대 60만원이다. 성남시 수도시설과에 비치된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와 수질검사성적서, 사업비 내역서 등을 통해 3월 말까지 접수를 받았으며, 접수된 신청서는 상담반이 검토 후 승인절차를 거쳐 통보한다. 지원금은 급수관 공사 후 지급한다.



속초시 수질검사 '적합' 판정으로 수돗물 신뢰도 향상

강원도 속초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 수돗물 평가위원이 입회한 가운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된 상수도 원수 및 종수에 대해 수질검사서에서 모두 '매우 좋음'을, 정수 56개 항목이 먹는 물 수질 기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관내 20개 가정 수도꼭지를 선정해 잔류염소 외 3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수질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들이 수질관리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며 수질검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춘천시 농촌상수도 설치 사업 본격 추진

강원도 춘천시는 물 부족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인접 시·군간 먹는물 협력사업인 농촌 지방상수도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2년까지 국비 등 200억 원을 들여 마을 상수도나 지하수를 마시는 동산면 일원과 남산면 광관리, 신동면 혈동리 외 인접도시인 홍천군 서면 일부지역에 수도물을 공급하는 상수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뒤 강원도로부터 수도 사업 인가를 받아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해당 지역의 수도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관 60km와 배수지 및 기압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2012년 농촌상수도 설치가 마무리되면 춘천권 700여 가구와 홍천군 서면 굴지리, 역전령리, 구관리, 어유포리 지역의 300여 가구에 수도물이 공급된다.

평창군 '평창강 살리기 사업 추진

강원도 평창군은 평창강의 수질보전을 위해 하수처리장 증설과 수질오염 저감시설 용자지원 사업 등 평창강 살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대화를 비롯해 진부, 대관령 하수처리장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3개소를 운영 중인 가운데 올해 42억 원을 투입해 대관령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을 증설할 계획이다. 또 하수처리장 설치계획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질오염 저감시설 용자지원 사업을 통해 수질오염을 해소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지역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비로 최고 2천만원 까지 연 3%의 대출금리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용자받을 수 있다. 이밖에 돼지, 한우, 닭 등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축종별로 사용하는 축사 m²당 2만 천 원부터 7만 4천원까지 사업비 단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청주시 영운천 생태하천으로 탈바꿈

충청북도 청주시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전국 600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선정한 50개의 생태하천 조성지구 중 영운천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상반기에 공사가 본격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영운동 동부우회도로에서 무심천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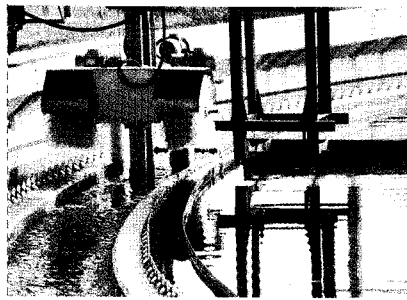
류부까지 2.6km에 이르는 영운천에 국비 24억 원과 도비 16억 원 등 총 사업비 40억 원을 지원받아 콘크리트 시설물을 뜯어내 자연형 시설로 2010년까지 교체할 방침이다. 또한 산책로, 관찰데크, 여울·징검다리, 고수부지, 수변광장 등을 조성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문화, 생태가 살아있는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의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가 사업비 60%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되는 등 청주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시 2025년까지 급수보급 98% 목표

충청남도 천안시는 2025년까지 시설개선 등으로 지역 급수 보급률을 98.2%까지 높일 계획이다. 천안시는 16일 3,048억 원을 들여 2010년부터 2025년까지 4단계로 나눠 수도보급 확대와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의 급수보급률은 2010년 92.7%에서 2015년 95.1%, 2020년 97.4%로 높일 계획이다. 이에 천안시는 수도 시설을 개량하고자 급수구역별 노후관로 298km를 개량하고, 57개 마을의 물탱크 교체 및 관정 보수와 시설물이 노후된 안궁 취수장과 성환 정수장의 폐쇄를 추진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상수도 수질 및 수요관리를 위해 먹는물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노후관리 정비, 중수도 확대 및 절수설비 보급 등을 통해 유수율을 현 83% 수준에서 8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천군 전문가 토론회 통해 금강 살리기 방안 논의

충청남도 서천군은 지난 3월 5일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금강살리기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최근 논란이 된 금강하구둑 개방과 관련하여 개발 방안을 놓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한국 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노백호 연구원과 전남대 전승수 교수의 주제발표가 1시간 가량 진행되었으며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을 좌장으로 하는 6명의 전문가 패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1시간 30여 분 동안 진행돼 금강 살리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논의됐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금강의 중심은



하구에 위치한 서천이며 금강살리기 사업의 본질은 하구역 개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 군수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금강살리기에 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상수도사업소 변방마을 음용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전라북도 전주시 상수도사업소가 변방마을 저소득층 음용 지하수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상수도사업소는 변방마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수질검사 비용부담 때문에 수질검사를 하지 못하고 음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처럼 개인위생 관리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수 음용세대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소는 지난 2007년부터 3개년동안 80개 마을 2,680세대를 목표로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1,000여 세대의 음용지하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료 수질검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해남군 물 관리 우수지자체 선정

전라남도 해남군은 최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09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에서 물 관리 우수 지자체 단체상을 수상했다. 해남군은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수질개선으로 안정적인 수자원을 공급하는 등 주민에 대한 서비스질을 향상한 공로가 인정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군은 수상을 계기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보건 및 위생 향상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환경타임즈와 (사)한국환경운동본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해남군을 포함한 전국 5개 시·군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상주시 가뭄지역에 '상그리아' 공급

경상북도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난 3월 12일 오랜 가뭄으로 인해 식수난을 겪고 있는 태백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상그리아' 3.5톤(350ml×1만병)을 태백시에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상하수도사업소 학습동아리 '물사랑 실천모임'에서 가뭄으로 고생하는 태백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가뭄지역 먹는물 지원에 참여해 공급하게 됐다. 또한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병입수돗물인 '상그리아'를 생산해 단수나 재해지역에 비상 음용수로 사용하고 시 및 산하기관의 각종 행사에 무상 지원해 상주시의 예산절감과 시민 수돗물 불신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상주시는 "얼마 되지 않는 수돗물이지만 겨울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태백시민들을 도울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우선 수범해 도울 것이며, 시민들에게 최상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전 직원의 역량을 결합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시 문산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 설치



경상남도 진주시는 문산 공공하수처리장(3천 200㎡/일)에 총 사업비 170억 원을 들여 증설 및 고도처리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하수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추가로 3천 900㎡/일 시설용량을 증설하고, 기존처리 시설에 대한 질소·인 제거를 위하여 MS-BNR 공법으로 전체시설을 고도처리시설로 개선할 계획이다. 하루 처리용량 7천 100톤의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진주 남가람 혁신도시를 관통하는 영천강은 물론 남강의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